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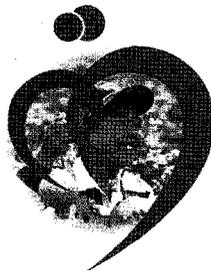
- 본회는 지난 10월 29일 프레젠테이션에서 <HIV 감염인의 복지와 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에이즈예방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HIV 감염인이 1,000명을 넘는 시점에서 그들의 복지와 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본회는 1999년 4월 6일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를 위해 숙식을 제공하는 쉼터를 개설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감염인과 환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인과 환자를 위한 쉼터는 단지 쉼터에 체류할 수 있는 몇몇 감염인들만을 위한 장소는 아닙니다. 정부주도로 개설된 쉼터는 감염인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사회가 서서히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부터 이해와 포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에이즈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광범위한 인식과 자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에이즈예방사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쉼터는 감염인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사회가 서서히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부터 이해와 포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 쉼터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작은빛공동체(한국가톨릭에이즈협의회)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행정사항, 상담, 방문의료지도, 자원봉사자 교육을 담당하며 작은빛공동체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활용하며 호스피스와의 연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정부, 학계, 민간단체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이즈전문 의사와 전문진료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상담하고 의료지도를 실시합니다. 또 이용자에 대한 건강·심리·사회적응문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쉼터의 일손보조와 가정간호를 위한 자원봉사자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염자단체와 연계하고 협력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쉼터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비공개 운영이 기본 방침입

니다.

이외에도 에이즈정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여 쉼터 비밀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정보 제공·교환, 전화·면접 상담, 쉼터 이용자 선별)를 제공합니다.

쉼터의 이용대상은 크게 이용을 원하는 감염인이나 환자, 일손보조나 환자간병을 원하는 건강한 감염인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본회와 쉼터 책임자의 면담을 거치고 전문의사의 진단소견서(전염병 등에 대한 진단)와 본인 서약서, 심사의견서(운영위원회 심사)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상담·교육·자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쉼터는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감염인과 환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받으며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며 서로 도울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쉼터이용현황을 보

면 현인원이 5명(감염인 4명/환자 1명)이며 연(延)인원은 745명입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의 방문의료지도가 총12회 이루어 졌으며, 수녀·수사·신부 등 기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알선이 2명, 공공근로사업 알선 5명이었습니다. 또 야외회를 가거나 생일이나 명절을



이번 심포지엄에는 각계에서 관심있는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쉼터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우선 외부노출 문제와 체류기간의 문제(감염인의 자활의지), 이용자간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정규 상근직원이 부족하다는 점,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의료시설과 영양기능이 미흡하다는 점, 지속적 도

움이 필요한 퇴소자의 생계 문제, 운영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소와의 연계나 홍보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홍보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임시체류자(병원 입퇴원 전후자, 지방거주자)에 대한 편리도모, 정신과 전문의사(심리치료사)의 쉼터 정기방문,

감염인 모임 및 자활단체와의 연계협력 확대, 치료비 선대납 후 회수제 실행, 협회 홈페이지 내에 감염인 대화방 마련 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또 체류인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며 다른 쉼터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쉼터 입·퇴소자

지원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이즈환자의 호스피스 활성화도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시찰이 구비되고 전문의사가 상근하여 중장기 동안 요양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A

이창우 / 본회 사무국장